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YOIDO FULL GOSPEL SEONGBUK CHURCH

“듣는 마음” 책자 소개

‘듣는 마음’이란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내 안에 임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큐티(QT, Quiet Time)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듣는 마음”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성경을 읽어가고, 말씀에 집중된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듣는 마음’ 활용법

예수님은 이천년 전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듯,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재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마태복음 6:9-10)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내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게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2.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편 1:1-2)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은 조용하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듯(사31:4),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하며, 선언하고 선포하듯이 읽으십시오.

3.말씀으로 기도하기

(베드로전서 2:1-2)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읽기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나아가 말씀읽기를 통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읽기와 기도는 결코 나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실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으로 기도하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블레싱 타임 : 듣는 마음 ·4

오늘의 성경읽기

블레싱 타임 : 주간 메시지 나눔 ·124

4월 5일 공과 - 바울의 사역

4월 12일 공과 -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4월 19일 공과 - 박해와 고난에도 굳건한 믿음

4월 26일 공과 - 너는 내 아들이라

선교사 열전 ·132

백정해방운동에 앞장선 사무엘 무어(Samuel F. Moore) 선교사
(한국이름 : 모삼열)(1860~1906)(한국 체류 1892-1906)

시편 3-4편 대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절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시편 3:1-8)

1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3**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5**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시편 4:1-8)

1 내 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2**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3**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야훼께서 들으시리로다 **4**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5**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6**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7**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5장

15 누구든지 야훼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야훼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잠언 20장

1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읽기 가이드

시편 3-4편

대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절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시편 3편 1-8절)

시편 3편은 '개인 탄원시'에 속합니다. 1-2절은 시인이 처한 위험의 강도를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개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대적들의 조롱을 들으며 쫓기고 있습니다(2절). 그러나 3절에서 갑자기 시인의 고백이 탄원에서 신뢰로 바뀝니다. 그는 야훼께서 자신을 '둘러싼 방패'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주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안전함을 느낍니다(6절). 7절의 '치심'과 '꺾으심'은 히브리어에서 완료 동사로 표현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이미' 치셨고 악인의 이를 '이미' 꺾으셨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라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원수(대적)들을 꺾으시는 주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시편 4:1-8)

시편 4편에서 힘없는 시인은 힘 있는 자들로부터 억울한 곤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 마음에 영원한 기쁨을 두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기쁨을 주십니다. 물질적 축복의 기쁨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에 담긴 영적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한 순간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께서 그 마음에 두신 이 영원한 영적 기쁨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 5:1-12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1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4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7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8 야훼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9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침하나이다 10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11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6장

17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18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잠언 21장

31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나와 이김은 야훼께 있느니라

골로새서 4장

18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지어다

시편 5:1-12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1-10절)

시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의인과 악인의 갈등을 주요 소재로 삼은 다윗의 시입니다. 앞의 시편 3, 4편과 마찬가지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윗은 시의 전반부에서 하나님께 보호를 호소함과 동시에 악인들에 대한 준엄한 징벌을 요청합니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11-12절)

본문은 전체적으로 신앙의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 '주의 보호를 받는 사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은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 피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에서 벗어나 신을 향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칭하시며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 8:1-9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야훼는 우리 주시다

1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만물을 하나님의 발아래 두시다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7장

18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잠언 22장

8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시편 8:1-9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야훼는 우리 주시다 (1-4절)

찬양시인 8편은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야훼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도움을 구하시는 시인, 탄식시에 주로 등장하는데, 이 시편에서 등장합니다. 특이한 시입니다. 탄식시와 찬양시 어느 중간쯤 되는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형태는 탄식시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시이고, 찬양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점을 생각할 때, 단지 하나님에 대한 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에 대한 시임을 보여줍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발아래 두시다(5-9절)

다윗의 고백은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가문의 주목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로 목동에 불과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의 달과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윗은 창조의 모습 속에서 인간을 통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특별히 그의 삶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은 결코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은 작고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 9:1-20 곤경에서 구원받은 자의 감사 찬송

의로운 재판관이자 우주적 심판자이신 하나님

1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2**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3**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4**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5**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6**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7** 야훼께서 영원히 앗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이다 **9** 야훼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10**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가난한 자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함

11 너희는 시온에 계신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2**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13**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14**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5**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6** 야훼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엮혔도다 (히가욤, 셀라) **17**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감이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18**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여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19** 야훼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 야훼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8장

35 너희는 칠 주야를 회막 문에 머물면서 야훼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36**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잠언 23장

26 내 아들이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시편 9:1-20

곤경에서
구원받은 자의
감사 찬송

의로운 재판관이자 우주적 심판자이신 하나님(1-10절)

시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1절). 시인은 나눠지 않는 마음 즉 '진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며 야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과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역사 속에서 행하신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패망을 지켜봄으로써 억울함으로부터 풀려지는데(3절), 이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내리신 결과인 것입니다(4절). 이어서 시인은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회고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6절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대제국들의 몰락(아시리아, 이집트, 바빌론 등)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십니다(8절).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이고 공평하기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경건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함(11-20절)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좌정하시며(7절), 동시에 '땅 위의 시온'에도 계십니다(11절). 하나님은 피 흘리는 자들을 기억해두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더라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희망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 10:1-18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

1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죄에 빠지게 하소서 **3**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5**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6**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7**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8**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9**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10** 그가 구푸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11**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간구와 신뢰고백과 찬양

12 야훼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3**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14**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15**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16** 야훼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17**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9장

6 모세가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야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7**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야훼의 명령대로 하라

잠언 24장

33 네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니 **34**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0:1-18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1-11절)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시입니다. 1절은 탄원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시인은 악한 자들의 교만과 행태를 탄원조로 고발합니다(2-11절). 악인들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억압하고 심지어 자신의 탐욕을 과시하며 야훼를 멸시하기도 합니다(2-3절). 그들은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이 인간의 역사 속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또는 '이신론자들'에 가깝습니다. 악인들이 이런 확신을 갖게 할만큼 긴 시간 동안 유지된 하나님의 침묵은 시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간구와 신뢰고백과 찬양(12-18절)

시인은 12-15절에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12절의 "야훼여 일어나옵소서"는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의 개입을 급박하게 요청하는 호소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사를 빠짐없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태를 모르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시인은 비록 가련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를 조롱하는 악인의 모습에 절망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회복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탄원시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이자 은혜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 11-12편 완전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시편 11:1-7)

1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2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3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4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5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6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7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도우시는 하나님(시편 12:1-8)

1 야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2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여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3 야훼께서 모든 아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4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5 야훼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 야훼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7 야훼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8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10장

9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지킬 영영한 규례라

잠언 25장

26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9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시편 11-12편

완전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시편 11:1-7)

피할 곳이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피난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큰 환란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피한다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며 아첨하는 자를 끊으시고 정직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며 하나님께만 피하고 그에게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완전한 구원자이자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피할 길을 내시사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시편 12:1-8)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의 눈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의인들을 안전한 지대에 올리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건지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 13-14편 어느 때에나 붙드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 응답받는 확신(시편 13:1-6)

1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도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3** 야훼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5**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타락한 인생을 책망하심(시편 14:1-7)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6**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야훼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7**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11장

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잠언 26장

24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25**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26**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13-14편

어느 때에나 불드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서 응답받는 확신(시편 13:1-6)

다윗은 끝을 알 수 없는 계속되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어느 때까지니이까”를 반복적으로 외치며 솔직하게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부지불식간에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은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임을 깨닫고 주의 구원하심으로 기뻐 찬양하여야 합니다.

타락한 인생을 책망하심(시편 14:1-7)

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죄로 부패하였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하며 부인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여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려 하며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합니다. 죄는 인간의 성품을 타락시킵니다. 타락한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없다하며 찾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성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 15-16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주의 장막에 유할 자(시편 15:1-5)

1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찬송(시편 16:1-11)

1 하나님이며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4**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5**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 내게 줄로 채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7**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8**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10**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13장

17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잠언 27장

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수 없음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시편 15-16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주의 장막에 유할 자(시편 15:1-5)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별하사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 안으로 인도함 받고 주의 장막 곧 주의 성소에 거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심지가 견고하며, 성실하고 공의를 말하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함이 입증된 사람이어야 할 것이며 참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무에게도 악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세속적인 모습 보다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찬송(시편 16:1-11)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이자 자신의 분깃으로 삼고 자신을 훈계하신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만을 자기의 복으로 여기는 자는 주님께 서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살아감이 기쁨이 됩니다. 항상 주님을 모시며 육체도 안전히 거하고 영혼도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결국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영원한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 17:1-15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무고한 자의 구조 요청

1 야훼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 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2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3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4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5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 하나님이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7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 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9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에게서 구원하소서

10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11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12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었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13 야훼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4 야훼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 주는 자니이다 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꺾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14장

8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잠언 28장

4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시편 17:1-15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무고한 자의 구조 요청(시편 17:1-15)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은 결단코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오직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거짓된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진실됨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다윗은 어떠한 시험과 환란에도 그의 입술로 범 죄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자신을 압제하는 악인들과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사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기를 간청합니다.

악인에게서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악한 대적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이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지켜 보호하시고 변호해주십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 18:1-15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1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지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 내가 찬송 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4**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영광과 음성을 듣게 하심

7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으로다 **8**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며 그 불에 솟이 피었도다 **9**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10**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11**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 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뻑뻑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12**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뻑뻑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13** 야훼께서 하늘에서 우렛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14**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흡수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15** 이럴 때에 야훼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15장

31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잠언 29장

18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8:1-15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1-6절)

시편 18편의 부제를 보면 ‘야훼의 종 다윗의 시’라 하여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을 기념하며 쓴 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힘과 도움이 되셨고 그 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또 “내가 찬송 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음성을 듣게 하심(7-13절)

하나님께서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 위에 계시지만 고난 당하는 성도를 돕기 위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는 그룹을 타고 나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신다’는 표현 중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람 날개’라는 말은 ‘영의 날개’라는 뜻으로 천사들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들며 그들은 빛처럼 빠르게 이동하며 일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됨을 말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19:1-14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영혼을 살리는 완전한 야훼의 율법

7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
 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
 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
 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2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
 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
 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
 다 14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16장

30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야훼 앞에 정결하리라

잠언 30장

5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
 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시편 19:1-14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1-6절)

하나님의 영광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조의 역사 속에 충분히 나타나 있으나 하나님의 계시 속에 그리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심을 증거 합니다. 또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증거 합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그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낮에게 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달과 별들을 통하여 전하지만,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자연 계시의 소리는 세상에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서나 들리고 느끼게 됩니다. 해는 멋진 새 신랑과 같고 지칠 줄 모르는 달리기 선수와 같으며, 온 세상은 그것의 따뜻한 온기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연 은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완전한 아뢰의 율법(7-14절)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여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그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영혼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계명은 순결하기에 눈을 밝히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순종하여 영혼의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날마다 말씀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시편 20:1-7, 21:1-7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시편 20:1-7)

1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 성소에서 너를 도와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4**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6**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7**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시편 21:1-7)

1 야훼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2**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3**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4**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5**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6**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7** 왕이 야훼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17장

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잠언 31장

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디모데전서 2장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읽기 가이드

시편 20:1-7, 21:1-7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시편 20:1-7)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를 높이 드신다는 말은 안전한 곳에 두신다는 뜻입니다. 환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복입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응답하셨고 또 장래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며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 뿐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시편 21:1-7)

다윗은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체험하였고 그 때문에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구원이며 그것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입니다. 다윗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기를 소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으셨습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전도서 1:1-18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만족함이 없는 이 세상

1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8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9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0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11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12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5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16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으로다 17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18장

5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야훼이니라

시편 22편

26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야훼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디모데전서 3장

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읽기 가이드

전도서 1:1-11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만족함이 없는 이 세상(1-11절)

‘헛되다’는 원어(헤벨)는 원래 ‘수증기’나 ‘입김’이라는 뜻인데 ‘사라지는 것, 텅없는 것, 무가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자(솔로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다만 뒤의 사람들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며, 그 사람도 또 죽을 것이므로 결국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게 되는데, 우리는 수 천 년의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12-18절)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반복됩니다. 물론 과학문명에서 발명이라는 것이 있고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도 있지만 인간 본성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종교적 문제, 도덕적 문제, 남을 미워하고 속이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 돈 사랑, 육체적 쾌락 사랑, 명예심, 교만 등의 일들은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고 변한 것이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으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지나가고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집니다. 또 다음 세대들도 우리에게 대해 똑같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것이 없습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전도서 2:1-17 어리석음도 지혜도 헛되다

즐거움도 헛되다

1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3**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4**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9**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12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리라 **13**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14**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15**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16**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된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17**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19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시편 23편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디모데전서 4장

6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읽기 가이드

전도서 2:1-17

어리석음도 지혜도 헛되다

즐거움도 헛되다(1-12절)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은 누구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를 추구한 인물입니다. 전도서 2장은 헛된 것들을 나열합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실험 중입니다. 술을 마셔 보기도 하고 사업을 크게 해 보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집과 포도원을 만들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보기도 하고 처첩을 많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일에 불과하다고 평가합니다. 지혜를 열심히 탐구하였지만 그것도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 속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23절).

지혜자나 우매자나(12-17절)

이 세상의 지혜는 결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인생 문제의 궁극적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덧입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의지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전도서 3:1-15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1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혈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6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범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9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 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2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4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20장

8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이니라

시편 25편

15 내 눈이 항상 야훼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디모데전서 5장

1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전도서 3:1-15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1-8절)

전도서 3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통제 욕구가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 시간대로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14절).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권자라는 사실과 사람은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감히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범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9-15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범사는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누리는 것은 창조주의 크신 섭리가 담긴 은총이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전도서 4:1-16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

학대, 수고, 동무

1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2**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3**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4**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5**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6**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7**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8**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게 태어나서 왕이 되어도

13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라 **14**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15**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16**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21장

8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야훼는 거룩함이니라

시편 27편

11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디모데전서 6장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전도서 4:1-16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

학대, 수고, 동무(1-12절)

전도서 4장은 인생의 고통을 말합니다. 악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는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성취를 시기하는 사람들과 성공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허망한 삶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1절). 마음과 삶에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참된 위로자를 만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과연 인생의 참된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몸과 영혼, 삶과 죽음에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들의 모든 범사에 고난과 궁핍함, 수고에서 자유함을 주시며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안식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왕이 되어도(13-16절)

전도자는 다시 속담(13절)을 인용한 다음 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아주 간추린 예화로써 밝힙니다. 전도자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이거나 전설적인 여러 경우를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도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한 후 이처럼 두드러지는 빈정대는 방식으로 여론은 쉽게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전통 지혜론의 낙관주의가 얼마나 의심스러운지를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전도서 5:1-17 헛된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1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나라 **2**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3**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4**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6**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7**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8** 너는 어느 지방에 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9**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재물과 부요와 존귀도 헛되다

10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1**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12**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3**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14**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 그가 모태에서 별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7**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22장

15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시편 28편

7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디모데후서 1장

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도서 5:1-17

헛된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1-9절)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에 관한 교훈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이 영원한 유익을 얻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그 누구도 완벽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만약 서원했다면 반드시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합니다(4-5절).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도 헛되다(10-17절)

재물과 부요가 이 땅에서 즐거움을 주는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유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집착하여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도는 결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마6:24). 우리는 세상의 맘몬인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도록 날마다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만이 헛된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어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전도서 6:1-8 삶의 만족은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함

1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2**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3**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4**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5**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니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6**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욕망은 다 채울 수 없음

7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8**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 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23장

3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야훼의 안식일이니라

시편 30편

11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디모데후서 2장

3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읽기 가이드

전도서 6:1-8

삶의 만족은 더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함(1-6절)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소유했다는 사실 자체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유를 가지고도 누리지 못한다면 아예 갖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은 물론 축복이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소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다 채울 수 없음(7-8절)

“입을 위한”(7절) 즉 먹는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고합니다. 하지만 “입을 위한” 욕구에 대해 완전한 만족이란 없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채워지지 않는 욕신의 욕구를 위해 평생을 애쓰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전도서 7:1-12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들

인생의 괴로움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

1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2**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 **3**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4**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쉬운 길을 가기보다 인내하며 지혜로운 길을 찾는 것이 유익이다

5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6** 우매한 자들의 웃음 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7**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8**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9**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10**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쩍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익이다

11 지혜는 유산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12**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24장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짠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돌지며 **3**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시편 31편

23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24**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전도서 7:1-12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들

인생의 괴로움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1-4절)

인생은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으며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 괴로움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깨닫고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인생이 천년만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인생의 소중함을 알며 매일의 하루하루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괴로움은 삶에 유익이 됩니다.

쉬운 길을 가기보다 인내하며 지혜로운 길을 찾는 것이 유익이다(5-10절)

세상에서 쉬운 길을 찾는 것은 쉬우나 진정 유익한 길은 지혜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책망은 유익합니다. 책망을 받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물을 멀리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뇌물은 판단을 흐리게 하므로 사람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마지막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도 성급하게 노를 내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찬란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과거에 매어 있다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생에서 쉬운 길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길을 택할 때 얻어지는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익이다(11-12절)

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귀중한 것이 있지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얻기에 힘써야 합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잠언 8:5-17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 지혜

시기와 때를 분별하여 처신하는 지혜

5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6** 무슨 일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7**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 **8**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지혜

9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10**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11**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12**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14**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15**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16**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17**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 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25장

17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18**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시편 32편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디모데후서 4장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잠언 8:5-17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 지혜

시기와 때를 분별하여 처신하는 지혜(5-8절)

세상에 존재하는 권위와 질서를 거스리지 않고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며 안전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도 모든 화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온전히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지혜(9-17절)

사람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세상은 부조리하고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악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어떻게 바라보며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생의 모든 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법칙이나 논리를 파악해서 그것을 잘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법칙이나 논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전도서 9:1-10 하나님께서 허락한 소중한 인생을 지혜롭게 살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1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 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2**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3**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소중한 삶을 성실히 누리라

4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5**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6**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7**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8**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9**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10**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26장

1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임이니라

시편 33편

1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2**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디도서 1장

5 내가 너를 그레테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6**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전도서 9:1-10

하나님이 허락한
소중한 인생을
지혜롭게 살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1-3절)

사람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 몇 분 뒤에 자신에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을 사는 동안 나름대로의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결코 알 수 없기에 인생은 사람의 뜻대로 경영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그 끝은 '죽음'이라는 같은 운명에 처합니다. 전도자는 이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인생이란 예측할 수도 없고 마침내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소중한 삶을 성실히 누리라(4-10절)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끝나게 될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인생의 절망과 회의감에 빠진 이 사람들은 인생을 함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을 성실히 살아갑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자는 주어진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전도서 10:1-15 어리석음과 그에 따른 결과

우매의 악함

1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2**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3**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4**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 받게 하느니라 **5**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6**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7**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8**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9**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10**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낱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11**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혀를 다스림, 게으른 자의 어리석음

12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13**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14**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15**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레위기 27장

28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야훼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야훼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시편 34편

10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디도서 2장

7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전도서 10:1-15

어리석음과 그에 따른 결과

우매의 악함(1-11절)

우매는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해를 끼치듯이 그 명성에 해를 끼칩니다. 참된 지혜는 사람으로 명성을 얻게 하는데, 그 명성은 귀한 기름이 들어 있는 옥합과 같습니다. 많은 지혜로 얻은 명성을 '적은 우매'로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혜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일을 빈틈없이 착수합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자기에게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 데에도 언제나 할 일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일을 서투르게 합니다. 우매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며 노출시키기가 매우 쉽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허를 다스림, 게으른 자의 어리석음(12-15절)

우매한 자는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며 부적절한 말로써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반면에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워서' 주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게으름은 사적인 일에나 공적인 일에 모두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을 태만히 하고 편안과 쾌락만을 사랑하면 건물은 퇴락하고 나중에 점차로 집이 내려앉아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허를 다스리며 게으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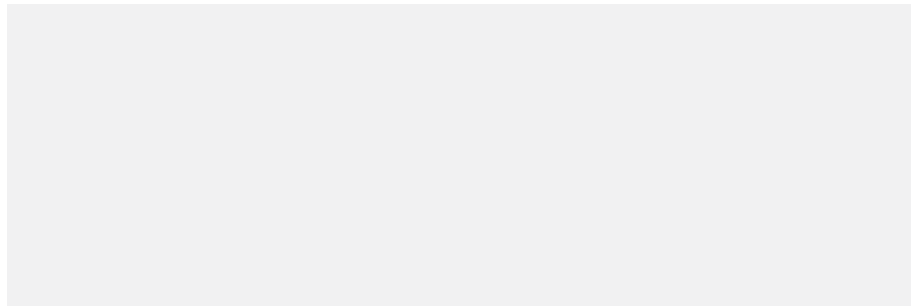
전도서 11:1-10 지혜로운 자의 삶

슬기로운 삶을 위한 충고

1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3**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4** 풍세를 살피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5** 바람의 길이 함과 아이 뱀 자의 태에서 빠져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6** 너는 아침에 비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 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7**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8**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라도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에게 주는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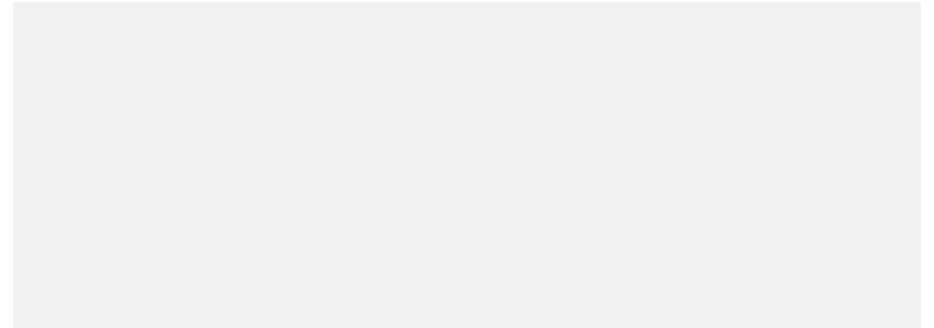
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0**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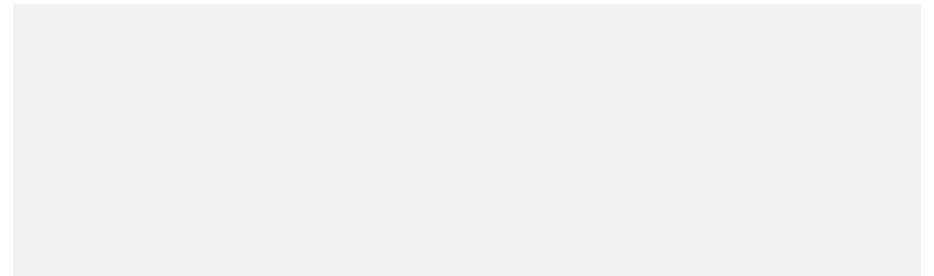
민수기 1장

53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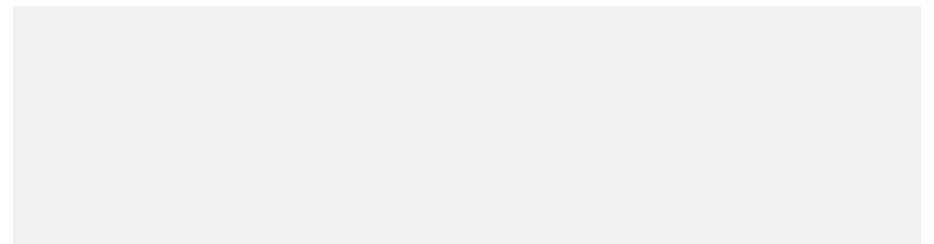
시편 35편

1 야훼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디도서 3장

2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전도서 11:1-10

지혜로운 자의 삶

슬기로운 삶을 위한 충고(1-8절)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자들은 스스로가 앞으로의 일을 알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고 재물이 필요한 자를 도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위탁하고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본문은 인간이 취해야 할 올바른 삶의 형태를 농부의 일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의 일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 것을 권고합니다. 인생에 황혼이 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날들을 의미 없이 보내게 될 것입니다.

청년에게 주는 교훈(9-10절)

젊은 청년들은 자신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기뻐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훗날 자신의 젊은 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주어진 젊은 날들동안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전도서 12:1-14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청년시절의 신앙에 대한 훈계

1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3**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4**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5**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매뚜기도 잠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6**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7**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본분

9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10**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1**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12** 내 아들이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2장

34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기를 따라 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시편 36편

7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빌레몬서 1장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전도서 12:1-14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청년시절에 신앙에 대한 훈계(1-8절)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젊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의무를 유념하라고 요청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고 젊은 이는 마치 세상에서 큰 것을 얻을 것처럼 기대하고 우쭐대지만 세상은 영혼에게 확고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청년은 자신의 창조자를 기억하여 이 세상의 허영으로 인해 일어나는 해악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특별한 병, 곧 감각적인 쾌락의 탐닉, 어린 시절과 청년 때 빠지기 쉬운 허영을 고치는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신 것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분(9-14절)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제기한 중대한 질문은 ‘인간이 행해야 할 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 해답은 참된 경건만이 참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요, 사람의 본분이며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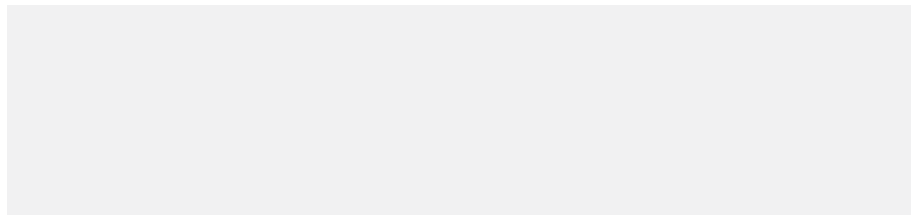
아가 1:1-1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신부의 고백

1 솔로몬의 아가라 2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3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4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5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6 내가 햇볕에 쬘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신랑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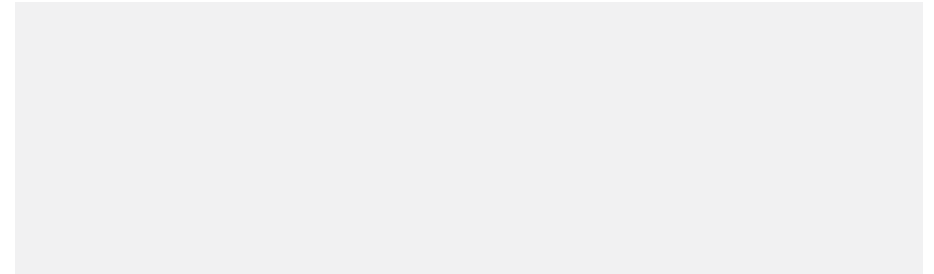
7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 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8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9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10 네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11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12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13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14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15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16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17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까래로구나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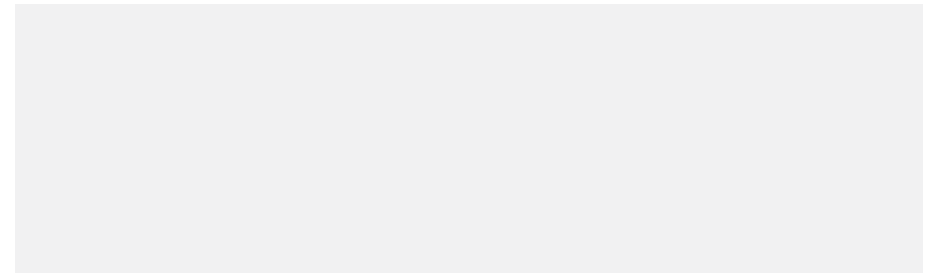
민수기 3장

13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야훼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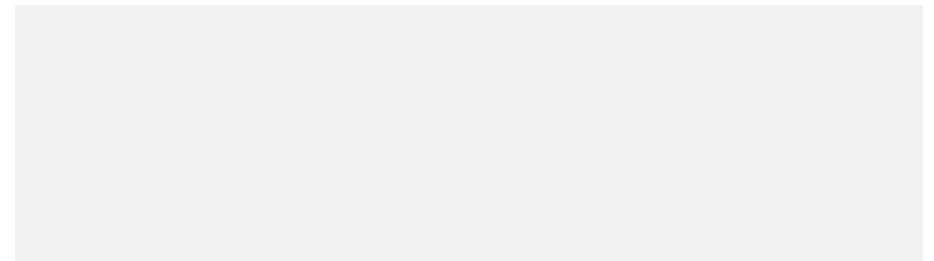
시편 37편

26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히브리서 1장

9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 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가 1:1-1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신부의 고백(1-6절)

이 시는 매우 복음적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입으로 하여금 새 노래를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처음에 신랑에게, 그 후에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라는 표현은 다음 두 가지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신랑의 애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처럼 은혜로운 영혼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둘째로 신부는 신랑과의 교제를 원합니다. 또한 신부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신부는 그 은총을 힘입어 더욱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 된 교회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실 때 성도들은 힘을 얻고 활기를 찾게 되며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신랑의 응답(7-11절)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에게 매우 겸손하게 탄원합니다. 이는 곧 교회(성도)가 그리스도께 하는 탄원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갖고 있는 감정은 양들이 선한 목자에게 느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 무리 중에 자신을 넣어 달라고 간청하는데 신랑은 이에 대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며 ‘내 사랑아’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다른 어떤 것들보다 사랑스러워 하시며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아가 2:1-17 화사한 신부의 간절한 노래

결혼 첫날밤의 회상

1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보다 2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3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4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5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생겼음이라 6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7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8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방문함

9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10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15 우리를 위하여 여우곶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16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17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4장

49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메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시편 38편

1 야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히브리서 2장

6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가 2:1-17

화사한 신부의 간절한 노래

결혼 첫날밤의 회상 (1-8절)

솔람미 여인은 자신을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아름다움은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두 연인의 사랑은 한결 무르익어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사모의 일념을 불태우던 중, 솔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그리워한 나머지 병에 걸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솔람미 여인의 원기를 회복시켜 달라는 요청은 사랑하는 임이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받쳐주고 다른 한 손으로 그녀를 안아주는 것에서 그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따뜻한 손길은 어느 것보다 더 크게 기력의 회복을 가져다줍니다. 솔람미는 사랑하는 임의 품 안에서 평안한 잠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들의 꽃이나 열매 맺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솔람미 여인을 방문함(9-17절)

솔로몬의 사랑 또한 그녀의 사랑처럼 강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골의 전원 속에 묻혀 있는 솔람미에게 사랑의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은 점점 더 영글어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는 고백에서 절정을 고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사랑의 시련에 대한 예고도 제시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 온 것입니다. 아가가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을 노래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이것은 신앙의 위기를 뜻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늘 위기가 있듯이 신앙에도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잘 살펴서 '작은 여우를 찾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아가 3:1-11 사랑으로 연합된 신랑과 신부(죄의 유혹)

솔람미 여인이 꿈에서 겪는 갈등: 여우를 잡음

1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2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 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3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4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5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결혼행렬

6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7 불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 명이 둘러쌌는데 8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찻느니라 9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10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11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씩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5장

22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시편 39편

7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히브리서 3장

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가 3:1-11

사랑으로 연합된
신랑과 신부
(죄의 유혹)

솔람미 여인이 꿈에서 겪는 갈등: 여우를 잡음(1-5절)

꿈속에서 연인을 찾아 헤매는 여인의 심정을 기록합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성안을 돌아다닙니다. 거리에서도 찾지 못하고 큰길에서도 찾지 못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렇게 찾고 찾아서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놓지 않고 집까지 그를 데리고 갑니다. 꿈속에서 또 한 가지 장면을 목격하는데 솔로몬 왕이 자신을 맞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결국 환희 속에서 만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뜨겁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감격에 벅칩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하겠지만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그것이 주는 기쁨으로 더욱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행렬(6-11절)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든 솔로몬 왕이 탄 솔로몬의 가마가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들어오고 있음을 말합니다. 구경꾼들에 의하여 묘사되는 결혼식 장면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새로운 가정이 탄생합니다. 솔로몬의 결혼식 가마는 가장 아름다운 재목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신부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은 최고로 표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아가 4:1-16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노래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함

1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2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3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4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5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6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7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8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오너라

즐거움의 근원으로서의 신부

9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10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11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12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13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14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15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16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6장

24 야훼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야훼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시편 40편

1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히브리서 4장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가 4:1-16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노래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함 (1-8절)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찬양하는 노래이다. 신부인 솔라미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너울을 쓰고 결혼식장에 입장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일어나서 신부의 '흠'이 없는 아름다움을 공중 앞에서 극찬합니다. 여기에서의 신부를 칭찬하는 내용은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칭찬입니다. 이 칭찬은 결혼식을 거행하면서 최고조에 달하는 사랑의 고백으로서의 칭찬입니다. 무엇이 솔라미 여인을 '흠'이 없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노래하게 만든 것인가? 바로 사랑하는 마음에 비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는 남편이 되면 서로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근원으로서의 신부(9-16절)

솔로몬은 솔라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꿀방울 같이 달고 아름다웠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다는 것은 곧 혀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증거함을 의미합니다. 레바논 향료가 주위 환경을 신선하게 하고 악취를 제거하듯이 의로운 행실은 곧 세상의 악함을 막고 신선하고 신령한 기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 솔라미 여인은 우물 혹은 흐르는 시냇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은 곧 축복을 의미하고 사랑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즉 사랑 안에서 누리는 행복한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풍성히 맺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아가 5:1-16 신랑과 신부 사이에 빚어진 갈등

솔로몬의 요구를 거절하고 후회하는 술람미 여인

1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2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3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4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5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빛장에 떨어지는구나 6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7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겹옷을 벗겨 가졌도다 8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9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

10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11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12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는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13 뺨은 향기로운 꽃발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14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15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6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7장

8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야훼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시편 42편

1 하나님이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히브리서 5장

13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가 5:1-16

신랑과 신부 사이에 빚어진 갈등

솔로몬의 요구를 거절하고 후회하는 술람미 여인(1-9절)

결혼한 신랑 신부가 신혼생활을 하면서 미묘한 갈등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전개됩니다. 결혼 첫날밤을 보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발을 씻고 침실에 누워 있었으니 옷을 챙겨 입고 문을 열어주려 문까지 가기가 조금 귀찮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신랑의 손이 보이자 신부는 마음이 쓰여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신랑이 문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문빗장을 움직여 문을 열려고 시도했을 때 신랑의 손에 몰약즙이 흥건히 적혀있었던 것입니다. 신부가 문을 열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할 때는 이미 신랑은 사라지고 보이질 않았습니다. 밤중에 신랑을 찾다가 순찰자와 파수꾼들로부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의 신랑을 만나면 신부가 상사병에 걸렸다'고 전해달라고 하며 신랑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10-16절)

신부 술람미 여인이 신랑 솔로몬에 대하여 조목조목 자랑합니다. 부부관계의 회복은 술람미 여인처럼 떠난 신랑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혹시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마음이 떠났다면 그 마음을 되찾기 위하여 술람미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자의 좋았던 점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는 남녀간 사랑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노래이면서 나아가 신랑 되신 주님과 성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막고 있는 비늘이 벗겨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아가 6:1-13 어여쁜 자와 이루는 사랑

서로에게 속하여 하나됨

1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2**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3**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 떼를 먹이는도다

사랑하는 자들이 다시 서로를 그리워함

4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5**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6** 네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7**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8** 왕비가 육십 명이요 후궁이 팔십 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9**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10** 아침 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11**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12**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13**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8장

14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15**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시편 44편

4 하나님이며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히브리서 6장

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가 6:1-13

어여쁜 자와 이루는 사랑

서로에게 속하여 하나됨(1~3절)

1절은 여자가 자신의 연인을 찾아다녔던 일(5:6)을 상기시킵니다. 2절의 '향기로운 꽃밭에...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라는 표현은 자신의 연인에 대한 남자의 전적인 관심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나아가 두 연인이 함께 보내는 시간의 낭만적인 즐거움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3절에서 두 연인은 각각 서로에게 속하여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여자의 사랑 가득한 노래(5:10-16)에 뒤이어 남자가 그녀를 묘사하는 두 노래로 화답 합니다(6:4-9; 7:1-9). 첫 번째 노래인 4~9절은 여자의 아름다움의 힘과 그 영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 노래는 가장 강렬한 낭만적 이미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다시 서로를 그리워함(4~13절)

젊은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모습에 감탄하며 그녀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옛 수도였던 디르사와 견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예루살렘과 견줍니다.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4절)라는 표현은 두렵고 무시무시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여자를 아름답고 고유한 힘이 있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남자는 연인의 몸을 탐색하며 포도나무와 석류나무를 통해 그녀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합니다(7절). 남자는 동산을 알아보고 동산의 비밀들을 밝혀보기로 한 자신의 결심에 대해 말합니다(11절).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바울의 사역

🎵 하나님 찬양하기

- 갈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
- 익은 곡식 거둔자 495장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8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초기에 쓴 서신으로, AD 51-52년경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 중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시기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고린도에서 바울은 디모테가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진 박해를 잘 견디고 있으며 다른 지방에까지 그 믿음이 본이 되고 있고, 바울을 보고 싶어한다는 기쁜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자신의 지도가 필요한 몇 가지 문제가 있음도 발견했습니다. 즉 회심한 성도들 중 그릇된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원한 장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도덕의 문제를 지닌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반대자들이 자신의 사역과 인격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지도하고 해답을 주고자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믿음의 마음과 자세로 전하였는지 기록해 봅시다.



적용과 나눔 신앙생활하면서 주위 성도에게 권면을 하여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가도록 한 경험이 있는가 나누어 봅시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돌보았는지 기록해 봅시다.



적용과 나눔 전도한 영혼을 잘 양육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적이 있는가? 그 경험의 노하우와 그리고 뒷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말씀
다지기

본문의 내용은 첫째, 교회를 향한 극진한 사랑과 감사가 드러난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염려를 표현한 듯한 구절(7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특별한 논쟁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반대자들에 대해서도 구약을 인용하여 온화한 논조로 서술했습니다. 셋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권고(3절)하며 위로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바울은 교회를 향한 사랑과 진실된 마음으로 돌보아 성도들을 믿음안에 살도록 양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 합시다.
2. 예수님을 더욱 증거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4월 12일
공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 하나님 찬양하기

- 446장 주 음성 외에는
-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디모데전서1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전서는 당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사도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는 친아들이 아니었으나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하여 복음 안에서 영적인 아들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복음사역을 펼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디모데를 그곳에 굳게 세워 선한 싸움을 싸워 갈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며 말다툼과 변론을 내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딤후1:3,4)

2. 사도바울이 쓴 이 편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딤후1:5)

💬 **적용과 나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긴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편지글이나 교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관찰과 묵상

1.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딤후1:16)

2.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2가지는 무엇인가요? (딤후1:18,19)

💬 **적용과 나눔** 사도바울은 내가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들 또는 그렇게 되고 싶은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족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믿음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말씀 다지기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의 수신자인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영적 아들이 이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며 복음안에 살아갈수 있도록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양육되도록 기도합니다.
2. 참된 믿음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합니다.



4월 19일
공과

박해와 고난에도 굳건한 믿음

🎵 하나님 찬양하기

-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복음사역자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생활 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며 이런 유혹과 환난에 대비하라고 말입니다. 또한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지 설명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관찰과 묵상**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적어봅시다. (딤후3:1-5)

적용과 나눔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주위에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지 나누어 봅시다. 또한 이러한 말세의 모습 가운데 나를 흔들리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나누어 봅시다.

관찰과 묵상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설명하며 바울 자신도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딤후3:11-12)



적용과 나눔 사말세에는 박해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사람들을 속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의 능력과 유익이 믿음 생활 가운데 체험 되어진 일들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말씀
다지기

말세에는 사람들이 더욱 악해지고 도덕적 영적인 타락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의 불신자들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신자들,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5절) 자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고난과 환난을 겪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9:23) 이러한 말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기도하기**

1. 마지막 때에 더욱 믿음이 견고히 세워질 것을 기도합니다.
2. 박해와 고난에도 더욱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4월 26일
공과

너는 내 아들이라

🎵 하나님 찬양하기

- 545장 이 눈에 아무증거 아니 뵈어도
- 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히브리서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서신서 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편지를 쓴 저자에 대해서는 사도바울 또는 바나바라는 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처한 자들에게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인내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수 있도록 호소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오늘 말씀1장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관찰과 묵상**

1.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을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무엇으로 세우셨나요? (히1:2)

2.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어디에 예언된 말씀인가요?(히1:5)

적용과 나눔 히브리서 1장2절과 3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아들을 통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이 세상의 만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음을 느꼈는지 그리고 언제 나의 죄가 씻음 받았음을 느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관찰과 묵상

1. 그리스도란 기름부음을 받은자 라는 뜻인데 그의 아들에게 어떤 기름을 부어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나요?(히1:9)

2. 모든 천사들은 누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나요?(히1:14)

적용과 나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침례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려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말씀
다지기

예수그리스도는 육체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형상과 품성을 나타내신 예수그리스도는 그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란 예언된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이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과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과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기도하기**

1.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녀들에게도 남길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백정해방운동에 앞장선 사무엘 무어(Samuel F. Moore) 선교사
(한국이름 : 모삼열)(1860~1906)(한국 체류 1892~1906)(2)

(5) 무어 선교사, 고종의 시의인 에비슨과 함께 백정 박가의 질병을 치료하다

무어 선교사가 활동하던 당시의 조선의 백정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거지보다도 못한 낮은 신분 이었고, 신분제도에 구속되어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 백정들은 돈이 있어도 기와집에는 살 수 없었고, 길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항상 허리를 구부리고 다녀야 했다. 비단 옷이나 짚신도 신을 수 없었으며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는 망건은 물론 머리도 묶지 못했다. 이런 백정들에게 무어 선교사는 복음을 들고 찾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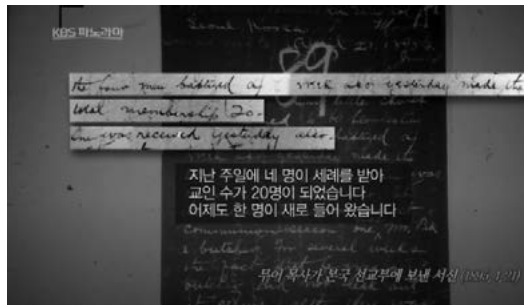


그림 무어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서신

백정 중에 박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티푸스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마침 박가의 아들 '봉출'이 무어 선교사가 세운 곤당골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무어 선교사에게 아버지 박가가 장티푸스로 죽어간다고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무어 선교사는 고종 황제의 시의를 겸하고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고 우리나라에 근대 의학 교육을 시작한 선교사)를 데리고 백정 박가의 집을 찾아갔다. 조선시대에 임금의 몸을 만지던 시의가 백정을 돌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에비슨은 여러 차례 왕진하면서 정성스럽게 박가를 치료하여 주었고 마침내 박가는 완쾌되었다. 백정들 사이에 난리가 나고 왕의 시의가 천한 백정 집에 왕진을 여러 번 와서 치료하여 주었다는 사실은 백정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박가는 임금의 주치의가 거지보다 더한 대우를 받던 백정을 치료하여 준 것에 감격해서 곤당골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1년 후 세례를 받아 "복을 이룬다"는 의미로 성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아들도 봉출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상서로운 태양"이라는 의미로 '서양(瑞陽)'으로 개명했다.

(6) 백정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고 양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따로 교회를 세움

박성춘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자신이 백정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백정이란 신분이 드러나자 교회에 나오던 양반 교인들이 백정과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다면서 예배당 앞쪽에 양반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고 무어 선교사에게 요구하였다. 처음에는 백정만큼은 교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반대하던 양반들은 한 발 양보하여 백정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되 양반 교인은 앞쪽에 앉고 백정들은 뒤쪽에 앉게 해달라고 중재안을 요구했으나, 무어 선교사는 '복음 안에서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양반 교인들은 곤당골교회를 떠나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1895년 광교 근처에 홍문수골교회를 세웠다. 신분 차별에 설움을 당하던 많은 백정들은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무어 선교사와 박성춘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박성춘은 자기 때문에 양반들이 떠나가자 백정 임씨, 원씨, 이씨 등 4명을 곤당골교회에 데리고 나왔고, 백정 조합 사무실에 나가 복음을 전파했다. 1895년 가을이 되자 백정들의 전도로 곤당골교회 교인들의 수가 세례교인 43명, 원입교인 14명 등 57명으로 증가했다. 곤당골교회는 백정교회라는 별명을 얻었다. 1898년에 경기도방예만 백정 신자가 132명이 되었다고 한다.

(7) 곤당골교회와 홍문수골교회가 다시 합쳐져 승동교회가 되다.

홍문수골교회로 분리하여 나간 양반들이 회개하고 1899년 가을 곤당골교회가 홍문수골교회로 들어감으로써 두 교회는 무어 선교사의 주관 아래 재결합에 성공했다. 분립한 지 4년 6개월만이였다. 양반과 백정이 같이 예배를 드렸던 승동교회는 1911년 백정이었던 박성춘을 장로로 피택했다. 그가 장로 취임 후 3년 후에는 고종이 아니었다면 왕이 되었을 서열이었던 왕소니 이재형 대감이 장로로 취임하였다. 물론, 하루아침에 백정에 대한 차별의식이 바뀌지는 않았다. 백정 박성춘이 몇 번이나 장로로 추천되었다가 떨어졌던 것이 그 예이다.

(8) 박성춘, 백정 해방운동에 앞장서다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신분제 차별 폐지가 발표되었지만 오랜 관습으로 인해 백정에 대한 관습적 차별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박성춘은 백정 계급을 대표해 유길준이 대신으로 있던 내무아문에 타원서를 냈다. 그 내용이 무어선교사의 회고록에 남아 있다.

“당신의비천한 종들인 우리는 500년 남짓 백정 일을 생활수단으로 살아왔습니다. 매년 조정의 제사때마다 조정의 요구에 순응해 왔지만 우리는 항상 무보수였고, 가장 천대받는 칠반천역 중 하나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다른 천민 계층은 도포와 갓과 망건을 쓸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하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심지어 지방관과 아전들은 돈까지 뜯어갑니다. 만일 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갓은 행패를 다 부리고 때로는 관가에 잡혀가 놀림을 당하고 욕을 먹으며 억지로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심지어 어린아이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그런 고통이 있으며 그 외에도 우리가 당하는 수없는 천대를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낮은 계층인 광대조차 갓과 망건을 쓰는데 우리들만 허용되지 않고 있어 그 한이 뼈에 사무치고 있습니다.비천한 충복들이 갓과 망건을 쓰고 다닐 수 있으며 또한 관가에 붙어사는 관리들이 우리를 부려먹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박성춘이 요구한 것은 백정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상투를 틀고 갓과 망건을 쓰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었다. 무어 선교사는 에비슨을 불러 이 백정들의 탄원서를 관에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에비슨은 1895년 청일 전쟁을 전후하여 만연된 콜레라를 잘 다스려 그공로를 인정받고 있어서 조선 조정도 에비슨을 무시하지 못했다

무어 선교사는 에비슨에게 “당신이 치료한 박성춘이 백정들의 건의문을 냈으니, 백정들을 위해 유길준에게 진정서를 하나 써달라” 고 했다.

박성춘의 탄원서와 에비슨 선교사의 진정서에 대한 내무아문의 회신이 무어 선교사에게 전달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희들의 소원을 허락한다. 갓과 망건을 쓰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도포를 입어라. 그리고 평민의 신분을 누려라. 그리고 주의해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외모만 갖추도록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너희들의 내적인 행복을 생각하라. 만일 관가에서 아전들이 너희들을 억압하려고 하면 싸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 교서를 보여주도록 하라.”



그림 세브란스의학교 7명의 첫 졸업생(1908년)

이로써 백정들은 일반인과 동등하게 갓과 망건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는 바로 백정들도 일반인과 동일한 인격체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당시 상민이 양반이 되는 것과 백정이 갓과 망건을 쓰는 것이 신분차별에 대한 가장 큰 한이었다. 복음을 접한 박성춘이 백정의 한을 푼 것이다. 박성춘은 자신들의 신분 해방을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비교하면서 기쁨으로 동료 백정들에게 전했고, 그를 통해 많은 백정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9)박성춘, 1898년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에 서다.

1899년 10월,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 개최하는 날이었다. 조선 최초로 고관 대신들과 일반단체와 학생들, 양인들이 대규모로 모인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런 자리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정승 판서들 앞에서 박성춘은 무어 선교사의 도움으로 개회 연설을 했다. 민중의 대표로 백정이 목소리를 낸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후에도 박성춘은 무어 선교사와 함께 전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며 평등사상을 전하는데 힘썼다고 한다.

(10)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다.

박성춘은 자기 아들 박서양을 에비슨에게 부탁했다. 박서양이를 제증원에 데려가 달라는 부탁이었다. 박성춘의 간청에 에비슨은 박서양의 제증원 입학을 허용하였다. 박서양의 사람됨을 알고보고자 처음에는 바닥 청소와 침대 정리 등 허드렛일을 시켰다고 한다. 성실하고 깨끗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의학서적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박서양은 제증원 의학교(세브란스 의학교)에 입학한 후 6년만에 졸업하고, 1908년 7명의 졸업생 중의 한 명으로 위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된다. 1913년부터 1918년까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했고 그 후 만주 간도지방으로 가서 학교와 병원을 개설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정부는 2008년에 박서양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했다. 박서양은 2009년 11월말 SBS에서 방송된 의학 역사 드라마 <제증원>의 주인공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박서양의 누이 박양무도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정신여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후에 선교사 마르타 힌틀리는 무어 선교사의 백정 해방 운동은 링컨의 노예 해방과 맞먹는다고 하였다.



그림 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서양의사, 교수)

(11) 무어선교사, 1906년 제중원에서 숨을 거두다

무어 선교사는 서울 근교의 순회 전도로 많은 교회를 설립하였으며, 평양신학교에서 한 학기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무어 선교사는 조선말을 하도 잘 하여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조선말을 쓰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하니 무어 선교사의 선교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무어는 고된 사역을 하다가 폐결핵에 걸려 조선에 온지 14년만에 제중원에서 숨을 거두고 양화진에 묻혀 있다.(은상철 장로)(*지난 3월 호에 실린 무어 선교사의 출생년도를 1846년이라고 게재한 것을 1860년으로 정정합니다)